

“5월 광주서 민주당 혁신 선언하겠다”

김한길 민주당 새 대표 인터뷰

“오는 16일 광주에서 민주당의 혁신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당대회에서 ‘위기의 민주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선장으로 선출된 김한길 대표는 13일 광주 지역 국회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혁신을 위해서) 욕 많이 얻어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호남 민심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며 “매서운 정책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 혁신위가 공직선거 1년 전 공천방법 확정 및 60일 이전 후보 확정제를 밝힌 바 있다.

▲지도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공천제도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상황식 공천제도를 만들어 내겠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내부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김태일 교수를 ‘기초자치선거공천제도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혁신 위해선 호남민심 지지 필요

5·18기념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

지명직 최고 호남배려 이뤄져야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수용하

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정부가 편성한 기념곡 공모 예산은 결코 쓰일 수 없을 것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을 배려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문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두 세 차례는 의한 바 있는데 전반적으로 호남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공천에서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참여 비중을 높인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길이다. 여기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밝혀야 한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허리나 엉덩이나를 따지는 청문회가 아니다.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북한 개성 일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 된다. 왼쪽부터 개성의 선죽교, 남대문, 고려 공민왕릉. /연합뉴스

北 선죽교·고려 공민왕릉 유네스코 등재 ‘눈앞’

개성역사유적지 등재 신청

다음달 프놈펜서 결정

북한 개성 일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된다.

유네스코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HO)를 앞두고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북한 개성역사유적지를 실사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개성역사유적

지구는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코모스는 이 실사 보고서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개성 시내와 서쪽의 산자락까지 포함해 개성역사유적지구는 고려 왕조의 지배 근거지를 대표하는 유산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연속유산은 12개의 개별유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다섯 구역은 개성성곽을 구성하는 유산들로, 삼중으로 구성된 고려의 방어체계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역사유적지구는 구체적으로는 개성성벽 5개 구역, 만월대와 침성대 유적, 개성 남대문, 고려 성교관, 송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

과 7개 왕릉과 명릉, 공민왕릉을 포함한다.

이코모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사를 담당하는 자문기구로서 그 평가 결과는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지난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을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바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이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책위의장 임명·윤창중 사건 등 막판 변수에

민주 원내대표 경선 셈법 제각각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를 앞두고 전병헌·김동철·우윤근(이하 기호순) 의원 등 3명의 원내대표 후보는 13일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경선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전남 정책위의장에 장병환 의원이 임명된 것을 놓고 후보들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후보 진영에서는 회비가 엇갈렸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지도부 경선에 서 호남 출신 인사가 모두 배제된데다가 사부총장마저 수도권 출신인 박기춘 원내대표가 임명되자 ‘원내대표 호남배려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광주 남구를 지역구로 둔 장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이 분위기가 수그러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광주와 전남을 지역구로 둔 김동철·우윤근 의원은 겉으로는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경선을 사흘 남겨두고 정책위의장 인선이 발표된 데 대해 “시기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전병헌 의원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일종의 러닝메이트 성격이 있다”면서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호남 출신이 뒀다면 원내대표는 오히려 수도권 출신이 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세 후보는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원내대표의 대외 대응력이 부각되자 자신이야말로 적임이라며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국회조사단의 현지방문 등을 통해 의문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자 노트

당신들의 문학관

광주에는 문학관이 없다. 서울에 7개, 경기·강원에 6개를 포함 전국에 문학관만 58곳이 있다. 추진 중인 곳까지 감안하면 70곳이 넘는다.

문학관이 없는 광주에, 내로라하는 문학인은 많다. 문학적 용어로 이르러나. 현대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나두야 간다’의 박용철은 광산구 소촌동이 고향이다. 김현승은 비록 출생지는 평양이지만 송일소학교를 다녔고, 양립동의 언덕과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심을 키웠다.

‘사평역’의 객재주, ‘전라도’의 이상부의 고향도 광주다. 이들 시인, 이승우, 공선옥은 광주 정서를 소실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이렇듯 한국 문학사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가 예향, 의향, 미향이지만, 사실은 문향(文鄕)이기도 하다. 문화수도 토대에 문화도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고, 그 역량이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문학관으로 집결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빛고를 문학관’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은 과연 시가 문화수도를 감당할 행정력을 구비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추진위에서 선정한 부지 선정과 관

련, 단 한 차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데다 추진위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부지를 공모한 점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추진위원 면면을 봐도 중심이 되어야 할 문학계 인사는 많지 않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 인사를 위촉했다.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문학인은 거의 없다.

여기에 황하록 추진위원장의 갈짓자 행보도 추진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후보자로 선정된 명성예식장 소유자에게 수십억원의 기증하도록 요구보지를 지지하는 기고

를 일간지에 실기도 했다. 또 당초 추진위에 참여,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시의 권유를 받고도 소극적이었던 광주전남작가회의의 행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문화의 기본은 문학이다. 서사와 감성이라는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본의 논리에 묻혀 문학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문학관 건립을 두고 벌어지는 불행사나 운 행태는 문화수도 광주의 미래를 어렵게 한다. 이런 난맥상을 두고도 시가 행정절차를 이유로 작금의 상황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문학관’이지 우리들의, 광주 시민의 문학관은 아닐 것이다. /skypark@kwangju.co.kr

무안공항 저비용항공기 뜨나

전남도, 日·中 항공사 신규취항 추진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 취항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13일 “최근 한류로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외국인 유치를 위해 일본과 중국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항공사는 일본 항공사 스타플라이어와 중국 남방항공이다. 지난해 118만명의 승객을 유치한 스타플라이어 측은 지난 7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 도 관계자들과 신규 취항 타당성을 검토했다.

또 중국 남방항공은 오는 6월 28일부터 무안~심양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저비용 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용역 결과 민간이 주도(자본금 400억원)하고 전남도가 일부 출자, 자본을 참여하는 형태의 저비용 항공사 설립 방안이 거론됐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금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건설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권리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서구 쌍촌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영광읍 녹사리 7층권리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화순읍 연양리 자연녹지 대지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금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지세한 문외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지세한 문외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장, 창고, 전시장 등

매월동 사광주역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녹지 전 1,620㎡(493평) 매매가 당200만원 조정

가치투자관련시설, 전시장, 창고 등 투자적합

투자 및 다용도용 토지

고흥군 동강면 동강동 부근 벌교-고흥 4차선 교차로 코너 관리지역 임야 6,600㎡ 매가 1억 5천 (교통, 접근성 편리, 경사도 없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중공인중개사

♣.병원건물 임대

☆.운암동 이파트 밀집지역 (금호·주공3단지,미라보 남양휴먼 우미 일신아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원 하실분 모십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당 이주 좋은 대지1,333㎡(94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총장소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 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